

Style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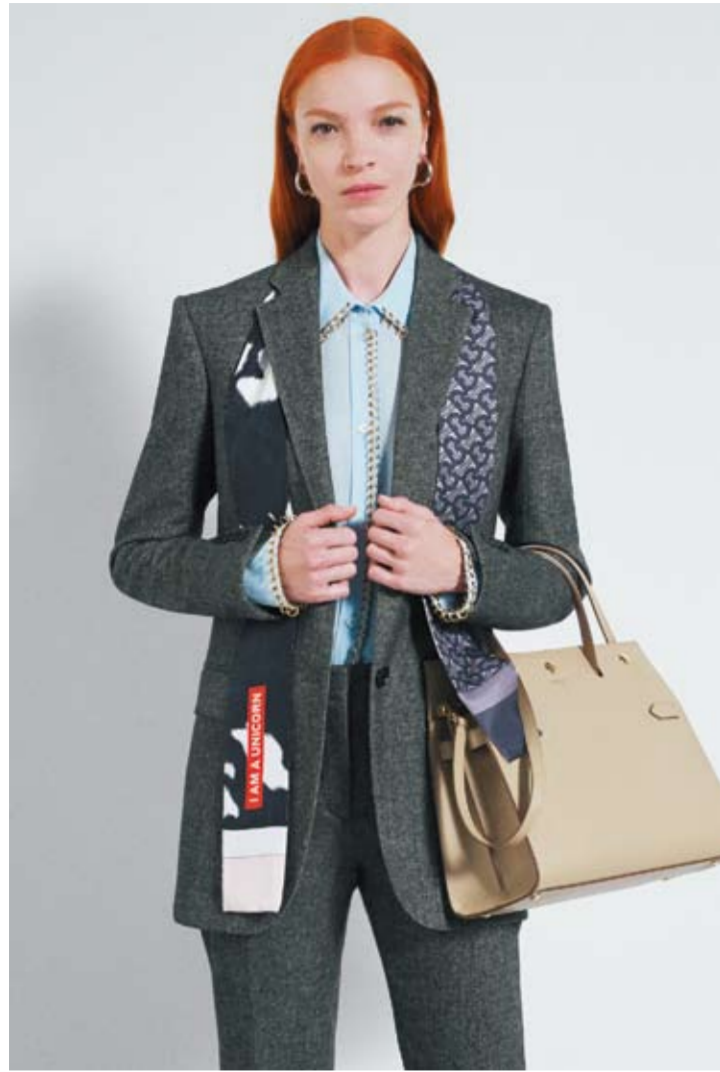
JUNE 2019
vol.190



CLASH DE *Cartier*

GUCCI





촬영: MARK BORTHWICK

BURBERRY
LONDON ENGLAND

SUBLIMAGE

L'ESSENCE FONDAMENTALE

CHANEL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
궁극의 피부 강화 에센스

생명력을 불어넣는 궁극의 피부 강화 에센스, 샤넬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 보석과도 같은 특별한 케어 기능을 가진 식물, 솔리다고(SOLIDAGO) 추출물로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되고, 샤넬의 상징적 식물인 바닐라 플래니폴리아 워터의 향산화 효과로, 지친 피부는 생기를 되찾습니다. 속부터 강화된 탄력과 생기있게 빛나는 궁극의 피부를 경험하세요. 샤넬 수블리마지 - 다시 찾는 내 안의 아름다움.



엑셀런스만의 라운지 인테리어가
당신의 여정을 보다 여유롭게
B&W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당신의 영감을 더욱 풍부하게
최첨단 하이브리드 트윈 엔진으로
당신의 남다른 생각이 돋보이도록

럭셔리 세단에 대한 새로운 기준
THE VOLVO S90 EXCELLENCE

MADE BY SWEDEN



LUXURY ON ANOTHER LEVEL

THE VOLVO S90 EXCELLENCE

5년/10만km 보증기간 연장
및 소모성 부품 무상 서비스*

서울 송파 02 413 0900 용산 02 794 1800 목동 02 2061 6789 동대문 02 2212 8855 대치 02 569 6080 서초 02 3486 2900 신사 02 515 9090
인천 032 858 0777 경기 일산 031 906 6789 분당 031 707 2266 수원 031 216 6777 안양 031 385 6789 강원 원주 033 735 2900 대전 042 628 2200
충청 천안 041 569 2900 광주 062 372 3600 전라 전주 063 275 3600 **NEW** 순천 061 754 7200 대구 053 768 5588 울산 052 268 0900
경상 포항 054 278 7900 창원 055 714 8020 부산 해운대 051 714 7400 광안 051 759 1600 •고객센터 1588 1777

볼보자동차 홈페이지 www.volvocars.co.kr 페이스북 facebook.com/volvocarkorea 인스타그램 instagram.com/volvocarkorea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S90 T8 AWD(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2,185kg, 자동 8단 복합연비(전기+휘발유 하이브리드): 휘발유 10.8km/l, 전기 2.9km/kWh, 1회 충전주행거리 28km (도심연비: 휘발유 9.9km/l, 전기 2.8km/kWh, 1회 충전주행거리 27km / 고속도로연비: 휘발유 12.1km/l, 전기 3km/kWh, 1회 충전주행거리 29km) CO₂배출량: 64g/km.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연비 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Pilot Assist)는 운전자의 설정에 따른 차량의 주행 및 조향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로서 자율 주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환경 및 조건에 따라서 작동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주행 중에는 항상 운전자 본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광고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 원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연장 및 소모성 부품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볼보자동차 공식 전시장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지는 5년여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아이코닉 주얼리 컬렉션인 플래쉬 드 까르띠에 중 18K 핑크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이다. 뾰족해 보이지만 착용감은 부드럽고 편안하며, 평평한 긴장감을 주는 원형과 정사각형 디자인의 매치, 기하학적이지만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 등 상반된 매력을 뽐낸다. 정화화된 주얼리 디자인에서 벗어나 감동한 개성과 자유로움을 담은 컬렉션이다. 문의 1566-7277

Style 조선일보

Issue.190 June 2019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l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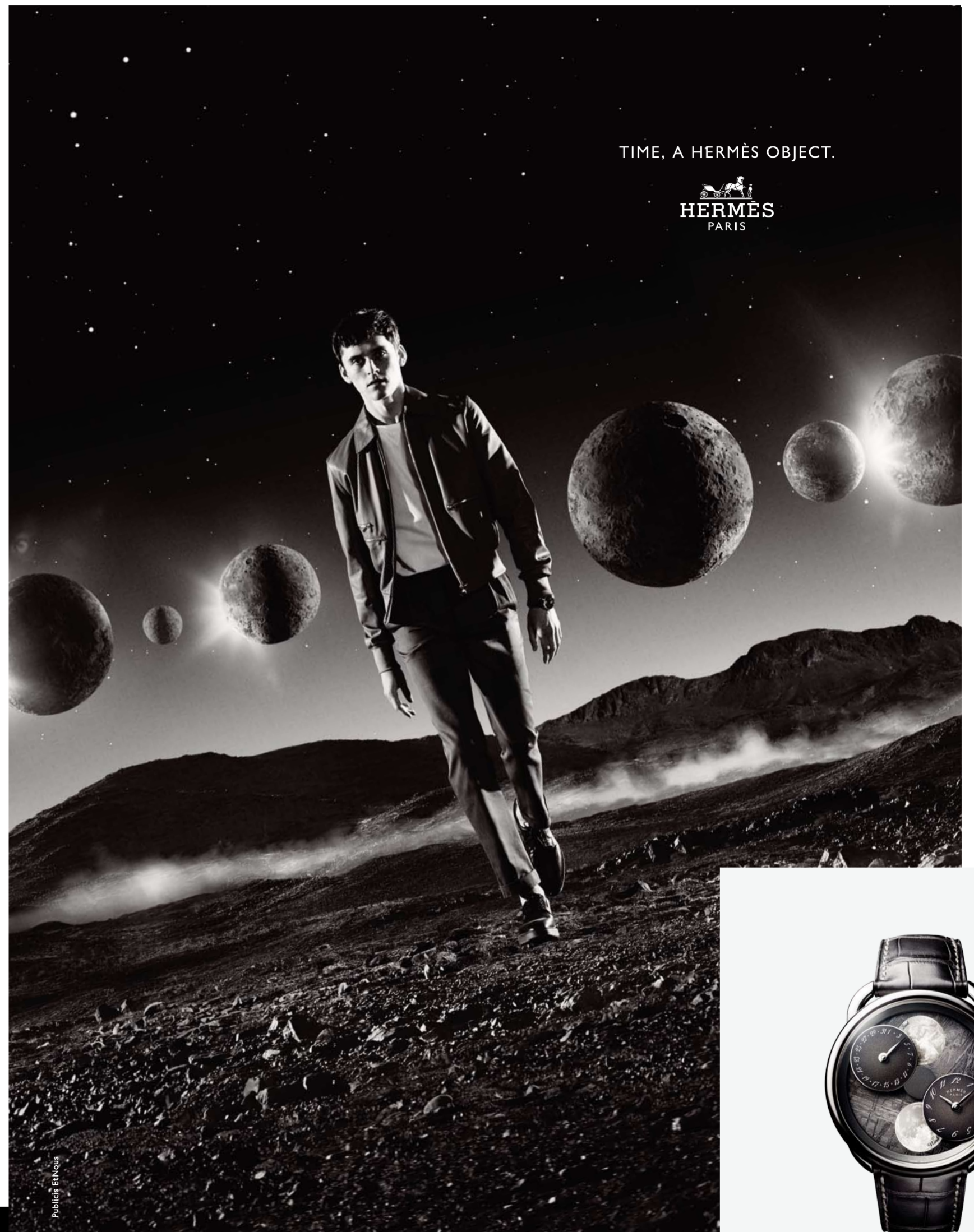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 16 **소통의 미술관, 그들이 공감을 이끄는 방법** 당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현대미술의 플랫폼인 타이베이 현대미술관(MOCA Taipei)은 은근한 매력에 남치는 타이베이에 간다면 꼭 들러볼 만한 작은 '소통'과 '채움'의 공간이다. 흔히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현대미술을 '즐길 만한' 것으로 소통해온 이 미술관의 비결은 무엇일까?
- 18 **BASELWORLD 2019** 매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계 박람회 바젤월드. 그러나 올해는 박람회장의 기류가 이전과 달랐다. 브레게, 오메가, 블랑팡, 론진, 라도 등을 전격하는 거대 시계 그룹 스와치가 불참한 것을 비롯해 1백여 개 가까운 워치, 주얼리 브랜드가 바젤월드를 떠난 것. 물론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유수 브랜드의 신제품을 통해 파인 워치메이킹 세계를 깊고 넓게 맛보는 흥분과 즐거움만큼은 변함없었다.
- 26 **SUMMER SCENT**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복고풍 서머 드레스와 함께한 초여름 오후의 포트레이트.
- 34 **COLOR HOLIC** 색색의 페인트를 까얏은 듯 형형색색으로 물들었다. 원색부터 네온까지 펼쳐진 눈부신 스펙트럼.
- 35 **DECISIVE SECONDS** 당신의 모든 시간을 결정적 순간으로 만들어 줄 뉴 J12 워치.
- 36 **FINE WHITE** 소재 자체에 걸려를 담았다. 가볍고 단단하고 무엇보다 도 스크래치에 강하다. 깔끔하고 시원한 화이트 세라믹 워치 7.
- 37 **THE EXCELLENCE OF PRECISION** 1948년 오메가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첫 번째 크로노미터 인증 손목시계를 선보였고, 이는 4년 뒤 선보인 컨스텔레이션 컬렉션의 중요한 오리지널 모델이 되었다. 70여 년이 지나 새롭게 선보이는 여성용 101 컨스텔레이션 모델은 조금 더 현대적이고 우아하다.
- 38 **THE ART OF TIMEKEEPING** 보다 예술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향유하는 워치메이커 리처드 밀이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타임피스를 소개한다.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포켓 워치 RM 0200이다.
- 39 **MODERN TASTE** 작년에 출시한 스타 레거시 콜 컬렉션의 이라비아 숫자 인덱스 모델은 큰 인기를 끌며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올해도 주목받을 스타 레거시 컬렉션 중 Best 3를 살펴보자.
- 40 **ART OF PRECISION** 예거 르쿨트르가 새롭게 선보인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마닛 리피터 퍼페추얼에는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과 기술력, 그리고 장인 정신을 반영했다.
- 42 **LIFTING & FIRING** 찰갑상어 알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바르는 즉시 눈에 띄는 효과를 주는 라프레리의 스킨 케어 라인.
- 43 **GENTLEMEN'S ESSENTIALS** 취향이 세련된 남성을 위해 탄생한 '블루 드 샤넬' 셰이빙 듀오 신제품.
- 44 **EDITOR'S PICK**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신제품까지, 〈스타일 조선일보〉가 다재롭게 추천하는 6월의 뷰티 아이템.
- 45 **SUMMER BREEZE** 존 바버투스 향수에서는 여유가 느껴진다. 자극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향을 선호하는 남성의 스타일링에 화룡점정이 되어줄 세 가지 향수.



Arceau L'heure de la lune
Time flies to the moon

Jewel SINGLE ROUND

커피스푼에서 보이는 원 포인트 브레이슬릿. 싱글 뱅글 하나면 충분하다.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81개의 브레이슬릿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18K 화이트 골드 크로쉬 브레이슬릿 1천원대 **사블 와인 주얼리**. 1971년 출시한 볼 앤 체인 유니섹스 브레이슬릿을 재해석한 하드웨어 볼 바이패스 브레이슬릿 2백1만원대 **타피니**. 핑크 골드도 2개의 타피니즈로 포인트를 준 포제션 오픈 밴드 브레이슬릿 2백만원대 **피아제**. 로즈 골드에 오픈워크 세공으로 로고를 새긴 비제르윈 브레이슬릿 4백만원대 **블기리**. 인공의 상호관계를 부드럽게 고이고 플라는 크로스 모티브와 리본으로 표현했다. 화이트 골드에 1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리양 세팅용 브레이슬릿 1천원대 **쇼에**.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라프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블리스만 오픈 밴드 9백만원 **드어스**. 에디터 **장리윤**

Fashion MR. CLUTCH

멋, 유행, 실용성을 겸비한 남자의 클러치 백 4.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네온 컬러체인 장식 모노그램 A4 파우치. 35.5X27cm, 1백51만원 **루이 비통**. 탈착 가능한 스타그램으로 활용도를 높인 그래픽 프린트 사파노 백. 23.5X35.5cm, 1백49만원 **프라다**. 로마 이모브 레퓨팅 파우치 30X20cm, 83만원 **헨디**. 클래식 모티브로 장식한 숏어거죽 클러치. 27X19cm, 91만원 **디올 맨**. 에디터 **이해미**

INSIGHT

편안부가 염상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Cars 초여름을 살리게 하는 하이엔드 카의 유혹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신차 출시소식은 귀를 즐겁게 하고 시선을 사로잡는다. 인간의 질주 본능만큼이나 하이엔드 카의 진화도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는 듯하다. 포르세 코리아는 모더소를 통해 브랜드 아이콘인 911의 8세대 모델과 페이스 리프트를 반영한 콤팩트 SUV '신형 마린' 등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67통 수랭대향 터보차저 엔진과 10.9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장착하는 등 더 강력해진 '신형 911 카레라 4S'는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 데 3.6초, 최고 속도는 306km/h에 이르고, 포르세는 미래 전략의 한 축인 하이브리드 모델 '신형 카이엔 E-하이브리드'도 최근 선보였으며 오는 9월에는 글로벌 무대에서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 '타이칸'을 내놓을 예정이다. 영국 슈퍼카 브랜드 애스턴마틴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빠른 유럽 기준 최고 속도 340km/h 컨버터블 모델인 'DBS 슈퍼리퍼'라 볼란테의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최첨단 단열 기능 등을 갖춘 직물 시스템 덕에 아름다운 루프 라인을 뽐낸다. 올 하반기 국내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마세라티는 V8 엔진과 'Q4 사륜구동 시스템'을 결합하고 최대 가속 성능을 가능케 한다는 '코사리'는 주행 모드를 갖춘 슈퍼 SUV '르반테 트로페오'를 선보였는데, 국내에서는 10세대 한정 판매한다. 토요타 코리아는 도심형 SUV인 5세대 풀 체인지 모델 '뉴 제너레이션 RAV4'를 공개했다. '크로스 옥타곤'을 모티브로 한 날렵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세련된 느낌을 더해준다는 평가다. 링컨 코리아는 2세대 링컨 MKX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 대형 SUV '노탈라스'의 사전 계약을 실시했다. 이 밖에 최근 성능이 한층 강화된 신형 배터리를 장착하고 신규 색상을 추가한 전차 '3120Ah'를 국내 시장에 선보인 BMW는 오는 6월 말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럭셔리 4도어 스포츠카 '뉴 8시리즈 그란 쿠페'를 세계 최초로 공개할 계획이라 자동차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에디터 **고성연**



Beauty HAPPY FEET

발을 드러내는 오픈투 슈즈를 신아야 할 계절. 거칠거칠한 피부결과 화끈화끈한 각질이 고민이라면 섀피 케어를 시작해보자.

(우부터) '버츠비 코코넛 풋 크림' 코코넛 오일과 함께 올리브, 카놀라, 콩 등 보태진 오일을 함유해 심하게 건조한 발의 보습을 책임진다. 로즈메리와 페퍼민트 추출물은 피곤한 발에 청량감을 더해준다. 여러 번 덧바르면 더욱 효과적이다(123g 1만7천원). **독시담 시어 인텐시브 풋 발** 시아버티 15%를 함유한 기준 풋 크림을 업그레이드해 시아버티 함유량을 25%로 끌어올렸다. 발과 발톱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발라주면 굳은살까지 매끄럽고 촉촉하게 가꿔준다(150ml 4만2천원). **뮈리 1803 더블 포디드 콘크리트** 시그니처 핸드크림의 촉촉한 보습감이 발꿈치까지 에센셜 오일을 더해 피부 진화 및 피방 효과까지 잡은 프리미엄 핸드 & 풋 크림이다. 사용 전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들어준 후, 손에 닿아내 손바닥의 온기로 녹여 사용한다(75ml 6만5천원). **이베나 풋 밀라프** 라벤더, 로즈메리 등을 블렌딩한 풋 크림으로, 거칠거칠한 발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꿔준다. 페퍼민트 오일과 티트리 오일을 함유해 정들기 전에 다리까지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상쾌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125ml 3만9천원). **러쉬 피니스 파워** 주성분인 부식성 발에 쌓인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풋 전용 스킵. 길바닥과 거친 피부에 오랜지 껍질 오일이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발기가 촉촉한 발에 마사지하듯 문지른 후 행글러면 된다(66g 9천원). **이슬 제논 리프 비디 스크럽** 부식성 대나무 줄기가 각질을 벗겨주며, 식물성 오일이 피부를 정화하고 진정시켜 하루 종일 활달했던 발에서 윤이 나게 해주는 각질 제거제. 일주일에 두 번 스킵에 적용량을 덜어 무릎부터 발까지 마사지하며 발라준다(180ml 4만5천원). 에디터 **장리윤**

Exhibition <하이메 이온, 숨겨진 일곱 가지 시연>+(헬로 마이 네임 이즈 폴 스미스)展



월 17일까지 계속된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DDP 개관 5주년을 맞아 헬로 마이 네임 이즈 폴 스미스(Hello, My Name is Paul Smith)전이 오는 6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열린다. 영국이 사랑하는 패션 아이콘이자 사진가, 다양한 영역의 수집가이기도 한 '팔링미인' 폴 스미스의 다채로운 면면을 접할 수 있는 전사다. 그가 디자인한 의상과 패션 소품뿐 아니라 페인팅, 오브제 등의 소장품, 직접 촬영한 사진 등 1천5백여 점을 선보인다. 폴 스미스 매장 1호점인 노팅엄 바이어드 레인 공간, 작업실 등도 재현해 볼거리가 풍부하다. 에디터 **고성연**

동시대 디자인을 이끄는 스타 크리에이티브의 활력을 전지 콘텐츠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미 한국에서 친숙한 영국 패션 디자인 가장 폴 스미스(Paul Smith), 그리고 가수, 제롬, 스케치 등의 영역에서 유쾌하고 발랄한 디자인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페인 디자이너 하이메 이온(Jaime Hayon)이 그 주인공들. 서울 대림미술관이 작가의 첫 개인전으로 꾸민 <하이메 이온, 숨겨진 일곱 가지 시연>(Jaime Hayon: Serious Fun)은 일상의 사물에 숨어 있는 판타지를 발견하고 오브제가 주인공이 되어 자마디의 스토리를 들려준다는 콘셉트로 구성된 일곱 가지 공간을 무대로 펼쳐진다. 영동하고 귀여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오브제 '그린 치킨(Green Chicken)'을 필두로 열대 과일들 모티브로 한 크리스털 작품들, 트라팔가 해군을 소재로 삼은 설치 작품,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가구 등 1백40여 점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다. 오는 11월 17일까지 계속된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DDP 개관 5주년을 맞아 헬로 마이 네임 이즈 폴 스미스(Hello, My Name is Paul Smith)전이 오는 6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열린다. 영국이 사랑하는 패션 아이콘이자 사진가, 다양한 영역의 수집가이기도 한 '팔링미인' 폴 스미스의 다채로운 면면을 접할 수 있는 전사다. 그가 디자인한 의상과 패션 소품뿐 아니라 페인팅, 오브제 등의 소장품, 직접 촬영한 사진 등 1천5백여 점을 선보인다. 폴 스미스 매장 1호점인 노팅엄 바이어드 레인 공간, 작업실 등도 재현해 볼거리가 풍부하다. 에디터 **고성연**



SWAROVSKI

#FollowYourDesires

Shop the new Summer Collection



MOCA Taipei

소통의 미술관, 그들이 공감을 이끄는 방법

16세기 초 포르투갈 항해자들이 부른 것을 계기로 '포모사(Formosa,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라는 별칭을 지닌 대만. 역사 궤적을 볼 때 우리의 여러모로 닮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성을 품은 이 나라를 찾은 한국 방문객 수가 지난 2년 연속 1백만 명을 넘었다. 이 같은 관심의 중심에는 언뜻 수수해 보이는 도시 풍경 속에 자리한 풍성한 다채로움이 인상적인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있다. 당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현대미술의 플랫폼인 타이베이 현대미술관(MOCA Taipei)은 은근한 매력에 넘쳐나는 이 도시에 간다면 꼭 들러볼 만한 작은 '소통과 채움의 공간이다. 흔히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현대미술을 '즐길 만한' 것으로 소통해온 이 미술관의 비결은 무엇일까?

봄비가 살짝 내리고 난 뒤의 미풍 섞인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는 어느 날 오후, 타이베이 번화가인 중산역 근처에 조용하게 자리한 붉은색 벽돌 건물 앞에서 있노라니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오라가 뿜어져 나온다. 실제로 1921년에 지은 이 건물은 대만의 역사를 반추하게 하는 문화유산이다. 일제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 초등학교로 쓰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뒤에는 타이베이 시 정부의 집무실 건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2001년 5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단이 운영하는 현대미술관으로 거듭났다. 미술관 자체의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고 규모가 방대하지도 않지만, 이 나라에서 대중과 평단에서 동시에 높은 평가를 받는 현대미술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콘텐츠의 다양성이 뒷받침되는 데다 전시를 담아내는 방식이 진지하되 마냥 무겁지 않아 젊은 층이 부담 없이 즐겨 찾고 사랑하는, 그리고 해외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그 이유를 파악하는 데는 콘텐츠를 몸소 체험하는 것만 한 게 없을 터. 2014년 K-팝을 다룬 전시를 진행하기도 하고, 2017년 아시아 지역의 주요 미술관으로는 최초로 대대적인 쿼어 아트 전시 <Spectrosynthesis - Asian LGBTQ Issues and Art Now>를 개최하기도 한 MOCA 타이베이의 존재를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현재진행형'인 전시를 직접 감상하게 된 건 처음이었다.

우리 삶 속의 '소리 풍경'에 귀 기울이게 하다

MOCA 타이베이는 일단 건물의 구성부터 독특하다. 정문을 바라봤을 때 일자로 뻗은 전면부가 미술관으로 쓰이고, 측면부는 고등학교로 사용된다(학교로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다). 지난달 초 필자가 방문했을 당시 미술관 1층에서는 개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시 <Living Sound-Expanding the Extra-musical>이 펼쳐지고 있었다(오는 7월 7일까지). 대만 미술계에서 촉망받는 큐레이터 라이 이신 니콜(Lai Yi-Hsin Nicole)이 맡은 이 전시의 기획 의도는 소리가 지니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함의를 탐색하면서 우리 삶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소리의 파편을 발견하고 다시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다. '어떤 것도 경계 바깥에 있지 않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곁들여서, 무슨 소리냐라고 속으로 불만스럽게 중얼거릴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둘러보노라니 각각의 전시 콘텐츠가 꽤나 경쾌하



고 흥미롭게 다가온다. 예컨대 전시장 입구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지안정룬(Chiang Chun-Lun)의 영상 작품 'Nobody Band #MOCA Taipei'. 미술관 직원들이 참여해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담은 '목소리를 들려주는 작품이다. 학교에는 '교가가 있고 나라에도 '국가'가 있는데, '그렇다면 미술관이라는 기관은?'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영상을 보면 필자를 안내해준 마케팅 담당자가 자신이 직접 쓴 가사에 아티스트가 불인 곡을 노래하고 거기 맞춰 춤추는 모습이 나온다(심지어 미술관 관장도 등장한다). 아이작 충 와이(Isaac Chong Wai) 작가의 3채널 영상 작품 'One Sound of the Futures'(2016)는 각각 홍콩,



1 개의 1세기 전인 1921년 지은 고딕스러운 건물의 전면부를 쓰는 타이베이 현대미술관(MOCA Taipei). 2, 3 지난 3월 말 시제에 5월 26일 막을 내린 기획전(Atemschauke)에는 2명의 여성 작가가 참여했다. 그중 사진, 사진작가, 화가인 류샤(Liu Xia)의 작품. 20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권 운동가 류샤오보의 아이비기도 하다. 이치지 제공 Guy Sorman 4 한때 MOCA 타이베이에서는 소리(sound)를 둘러싼 정치, 사회, 문화적 고찰을 담은 전시(Living Sound-Expanding the Extra-musical)이 열리고 있다. 홍콩, 광주(한국), 우한, 세 도시 주민들이 나와 자마다 그리는 미래의 비전을 외치는 모습이 담긴 홍콩 아티스트 아이작 충 와이(Isaac Chong Wai)의 3채널 영상 작품 'One Sound of the Futures'(2016). 5 2015년 아시아의 주요 미술관으로는 최초로 대대적인 쿼어 아트 전시 <Spectrosynthesis - Asian LGBTQ Issues and Art Now>의 2017년 전시 작품 'Man Hole' by HOU Chun Ming. 대만인 아시아 최초의 동성애이 합법화된 국가이다. 9 차츰 화해(해)자는 인간의 기억처럼 이미지 뒤로 빠뜨려지는 자신의 그래픽 이미지를 볼 수 있는 EggPlantEgg x Cowper Wang의 작품 'XiaoDingDang in My Dreams'. 사진: 대만 MOCA Taipei, Courtesy of the artists

광주(한국), 우한, 이렇게 세 도시 주민들이 나와 자마다 그리는 미래의 비전을 목청껏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도시마다 다른 참가자들의 얼굴 표정이 흥미롭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타이베이 자유 광장에서 진행한 촬영분도 추가됐다. 미술관의 이전 전시에서 쓰인 도구와 재료를 바탕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구들을 선보인 카롤리나 브레글라(Karolina Bregula)의 작품 'Instruments for Making Noise' 역시 미소를 유발한다. 관람객이 원하면 이 '깜찍한' 악기들을 빌려 '정치적 항의를 위해 사용하고 돌려줄 수 있다.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유도하는 참여형 전시

대중음악을 소재로 펼쳐지는 또 하나의 전시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These Flowers>가 동일한 기간에 걸쳐 펼쳐지고 있는데, 2015년 처음 시작한 연작 프로젝트다. 음악을 매개체로 '시간과 기억'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네 삶을 곱씹어보게 하는 이 전시에는 유명 디자이너 조 팡(Joe Fang)을 비롯해 인기 록 밴드 메이테이가 뮤직 디렉터 역할을 했고, 대만 인텔에서 11명의 싱어송라이터와 10명의 현대미술 작가가 참여했다. 모두가 흥얼거릴 수 있는 음악을 공통분모로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가 마련돼 있는 이 전시는 확실히 관객 몰입도가 높다. 특히 관객들로 하여금 천장이 높은 전시 공간의 한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할 채 온갖 표정을 짓게 하는 에그플랜트에그X 코퍼 왕(EggPlantEgg x Cowper Wang)의 작품 'XiaoDingDang in My Dreams'는 인기 만점이다. 마치 차츰 희미해져가는 인간의 기억처럼 이리저리 휘고 찌그러지는 자신의 그래픽 이미지를 보는 매력에 푹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옛가락처럼 길게 늘어지고 구부러진 진화상을 연신 담아내는 '셀카 삼매경으로 이끄는 건 물론이고 말이다. 그런가 하면 바로 옆에는 역시 시선을 좀처럼 땄 수 없게 하는 커다란 스크린이 걸려 있는데, 조 팡의 외조부를 등장시킨 'Dear'라는 멀티미디어 작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인의 미묘한 표정을 지켜보노라면 무심하게 짝이 없는 시간의 변화와 소멸 등에 대한 단상을 떠올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듯하다. 흥에 들뜨게도 하고 애잔함에 빠지게도 하는 대중음악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전시의 콘텐츠를 담은 음악 앨범도 발매됐다.

한술과 슬픔을 승화시키는 치유의 예술

지금은 막을 내렸지만 필자가 방문할 당시 1층 한쪽 공간에서 열린 작은 전시가 또 있었다. 전시 포스터부터 적잖이 심상찮은 느낌을 자아내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전시였다. 체도 높은 노란색 벽을 배경으로 걸려 있는 전시장 내 사진들은 망령이 울부짖는 모습을 담은 듯 어둡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복도 쪽 창문에는 시가 적힌 하얀 종이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바닥 곳곳에는 초록빛 잎이 담긴 화분, 그리고 등골게 돌돌 말린 쪽지가 들어 있는 조그마한 유리병들도 놓여 있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는 배치일까 싶은 이 묘한 기운의 전시명은 <Atemschauke>. 우크라이나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용된 17세 소년을 통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계 루마니아인들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을 그려낸 소설가 헤르타 밀러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한국에서는 '숨그네(Breath Swing)'라는 제목으로 출간돼 있다)과 같은

제목이다. 지난 3월 말부터 5월 26일까지 열린 이 전시는 2명의 여성 아티스트들이 참가한 2인전이다. 창문에 걸린 시와 얹음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의 흑백사진 26점은 류샤(Liu Xia), 화분과 유리병을 비롯해 복도 끝 정중앙에 딱 한 점 걸려 있는 그림은 차이하이루(Tsai Hai-Ru)의 작품. 이들은 자신의 가족 중 정지 최수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작은 유리병 속에는 그린 아픔을 지닌 다른 여러 가족의 사연이 들어 있었다). 화분이 있는 방에는 중간중간 낮은 의자들이 놓여 있어 관람객으로 하여금 차분히 앉아서 사연이 담긴 쪽지를 읽게 했다. 그런데 이 두 작가는 협업을 했음에도 정작 서로 만나지는 못했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류샤는 중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2년 전 수감 중 세상을 떠난 류샤오보(Liu Xiaobo)의 아내로, 개막식에도 오지 못했다. 프랑스 비평가 기 소르망(Guy Sorman)의 제안으로 기획했다는 이 전시는 MOCA 타이베이의 관장 유키판(Yuki Pan)이 직접 큐레이팅을 맡았다. "처음에는 기 소르망이 프랑스 작가와의 협업을 제안했는데, 아시아 작가가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비슷한 트라우마를 지닌 작가 차이하이루를 떠올렸지요." 유키판의 설명이다. 차이하이루는 계엄령이 무려 38년(1949~1987)이나 지속됐던 대만의 아픈 시절에 부친이 민주화 운동으로 장기간 투옥된 사연을 갖고 있는 작가. 부친이 부재한 긴 세월 동안 나머지 가족이 고통스럽게 지내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는 그녀는 사실이 전시에 참여할 결심을 하는 데도 적잖이 고심했다고 털어놓았다. 떠날 때는 '청춘이었던 부친이 완전히 민간인으로 돌아왔을 때 나이가 거의 예순이었다고 하니 그럴 법도 하다. 그래도 그녀의 작품에는 희망이 스며들어 있었다. 파르파릇한 생명력을 머금은 듯한 화분도 그려라거나 검은색 바탕에 고개를 무릎에 파묻은 채 우크리크고 있는 사람을 담은 한 점의 그림에 대해 "나비를 뜻해요"라고 말하면서 작가는 수줍은 미소를 띠었다. 자유롭게 날다라니라는 맥락에서 그랬다는 설명이다. 당시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하는 어린 관람객들이 시를 읽고 유리병 속에 담긴 사연을 읽으면서 공감할 때도 마치 뭔가 말하는 듯, 기운을 북돋워주는 화분에 둘러싸여 있도록 한 것도 그녀의 배려 섞인 연출이다.

MOCA 타이베이를 찾는 주 연령층은 10대 후반에서 30대의 젊은 층이다. 아마도 주된 원동력은 관람객이 때로는 즐겁게 구경하거나 참여하고, 때로는 진지한 아픔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의 다채로운 콘텐츠가 아닐까 싶다. 게다가 디지털 세대에 익숙한 영상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소통에도 일찍잡치(2008년) 적극적으로 나서 패턴된 팬층을 구축하는 데도 성공했다(페이스북 팔로어가 30만 명이 넘는다). 지난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디지털 시대 문화 기관의 소셜미디어 연대기'를 주제로 한 'ACC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소통 창구로 소셜미디어와 예술 교육을 활용한 MOCA 타이베이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양성을 토대로 대중이 새로운 관점과 사고를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동시대 미술의 덕목이고, 유키판 관장의 말처럼 '예술은 '진실'을 미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려한 위용이나 규모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는 솔직하고 활기찬 소통이 눈에 띄는 MOCA 타이베이의 사례는 생각할 거리를 준다. 글: 2016년 타이베이 현지 취재

BASELWORLD 2019



매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계 박람회로, 신제품 트렌드와 시장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바젤월드. 브랜드 관계자는 물론 업계 종사자, 프레스, 바이어, 일반 관람객까지, 시계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붐비는 데다 행사 기간 내내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박람회장의 기류가 이전과 달랐다. 브레게, 오메가, 블랑팡, 론진, 라도 등을 전격하는 거대 시계 그룹 스와치가 불참한 것을 비롯해 1백여 개 가까운 워치, 주얼리 브랜드가 바젤월드를 떠난 것. 자연히 박람회를 찾은 방문객 수 역시 전년 대비 22% 감소했고, 보다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물론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우수 브랜드의 신제품을 통해 파인 워치메이킹 세계를 깊고 넓게 맛보는 흥분과 즐거움만큼은 변함없었다. 혁신적인 무브먼트와 신소재를 적용한 최첨단 시계부터 기존 라인업을 확장한 모델, 기술력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유니크 피스까지, 브랜드의 뚜렷한 정체성을 극대화한 시계를 펼쳐 보여 여느 해만큼 다채로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한편 내년 바젤월드는 SIHH 기간에 이어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춤해져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VR을 활용한 체험 존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작은 위기를 큰 기회로 삼아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다. **에디터 이혜미**



THE BRONZE AGE



최근 두드러진 레트로 트렌드의 영향인지 루터, 브라이틀링, 태그호이어, 오리스, 제너스 등 다수의 브랜드에서 브론즈 소재 케이스를 장착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특유의 빈티지한 느낌이 멋스럽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색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파티나 효과 때문에 세상에 하나뿐인 인간의 시계를 기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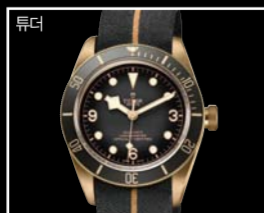
WATCH TRENDS KEY WORDS 3

FINE TITANIUM



스틸보다 밀도가 40% 정도 낮아 매우 가볍고 견고한 티타늄은 과거 파인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던 소재. 하지만 최근 들어 종종 여러 하이엔드 워치메이커가 고도의 기술을 적용한 시계에도 스틸이 아닌 티타늄 케이스를 선택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울트라 신 워치로 다시 세계 시계 시장을 세운 블랑파인의 옥토 피니시모 크로노그래프 GMT 오토매틱은 케이스, 다이얼, 브레이슬릿까지 모두 샌드 블라스트 처리한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다. 워블러는 주요 컬렉션인 빅뱅 상블루 II, 클래식 퓨전 올린스키, 클래식 퓨전 페라리 GT에서 티타늄 모델을 선보였으며, 제너스 역시 로즈 골드와 티타늄 콤비의 디피이 클래식 투톤 모델을 출시했다.

THE LEGEND IS BACK



복각 워치 또는 과거 생산을 중단한 모델을 재해석한 시계의 등장이 두드러졌다. 브랜드 입장에선 유구한 헤리티지와 스토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며, 고객 입장에서선 기념비적인 모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브라이틀링은 1959년 출시한 초기 내비게이터 워치와 디테일까지 동일한 리에디션용, 튜더는 1950년대와 1960년대 프랑스 해군에 공급한 다이버 워치에 기반해 만든 블랙 베이 모델을 선보였다. 한편 제너스는 엘 프리메로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며 1969년 제작한 최초의 엘 프리메로 모델을 복각한 A386 리바이벌 에디션용을 출시했다.

옥토 피니시모 크로노그래프 GMT 오토매틱

BVLGARI

예측 불가능한 대담하고 파격적인 이탈리아 디자인과 우수한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을 담고, 거기에 전통적인 로마의 주얼리 매종다운 심세하고 정교한 장인 정신을 더했다. 불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세르펜티와 옥토, 두 마스터 컬렉션에 집중하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정립하며 2019년을 열었다.

옥토 피니시모 크로노그래프 GMT 오토매틱

불가리 워치 노하우의 집약체이자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써온 시계라 할 수 있는 옥토 피니시모. 세계에서 가장 얇은 투르비용(2014년)과 미닛 리피터(2016년), 셀프 와인딩(2017년), 그리고 오토매틱 투르비용(2018년) 등 작년까지 네 번째 세계 기록을 달성해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옥토 피니시모 크로노그래프 GMT 오토매틱은 무브먼트 두께 3.3mm, 케이스 두께 6.9mm로 다섯 번째 세계 기록을 수립하며 불가리 워치메이킹의 전통성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GMT 기능을 조정하는 9시 방향 버튼으로 로컬 타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홀 타임은 3시 방향 스브 카운터를 통해 보여주는데, 24시로 밤과 낮을 표시한다. 크로노그래프 미닛 카운터는 6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는 9시 방향에 자리한다.

세르펜티 세투토리

'본 투 비 골드(born to be gold)'를 테마로 한 세르펜티 워치의 한대만 버전인 새로운 세르펜티 세투토리 시계는 아이코닉한 물결을 모방 케이스가 특징. 세르펜티 컬렉션의 어떤 모델보다 얇고 플랫한 케이스로 새롭게 디자인했으며 육각형 브레이슬릿을 채택했고, 로마 주얼러의 위상을 실려 카보숑 컷 스톤 크리운을 세팅했다. 손목 위에서 부드럽게 흐르며 강렬하고 관능적인 오로를 풍기고, 로즈 골드,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그리고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모델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옥토 로마 그랑 소네리 퍼페추얼 캘린더

1994년 선보인 첫 그랑 소네리 워치(불가리는 지금까지 90피스 이상의 그랑 소네리 시계를 소개해왔다) 탄생 25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유니크 피스 워치. 불가리가 스위스 기계식 시계 관련 노하우를 완벽하게 마스터했음을 보여주는 한대만 판티피스트 라운드 버전이다. 지름 44mm 기본 CTP 케이스에 로즈 골드 안테스를 표시했으며 오토매틱 와인딩 기계식 매뉴팩처 무브먼트, BVL 980 칼리버로 구동한다. 차침과 동시에 와인딩할 때 무브먼트를 보호하고, 그랑 소네리 모드 시 마스 리피팅 시스템이 구동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 장치를 장착해 더욱 안전하다.

옥토 피니시모 스텔레톤 세리믹

옥토 피니시모 시계를 중 소재 면에서 혁신을 시도한 버전이다. 오토매틱 기본 버전과 매뉴얼 와인딩 스텔레톤 버전으로 이루어진 2개의 새로운 옥토 피니시모 세리믹 워치의 모든 부품은 하이테크 세리믹 소재로 제작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물론 다이얼과 버클까지 모두 블랙 샌드 블라스트 세리믹이다. 세리믹 소재는 가볍고 스크래치에 강하나 제작 시 까다롭다. 까다로운 점이 있는 소재라, 얇은 두께를 표현해야 하는 옥토 피니시모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큰 도전이었을 듯. 그중에서도 스텔레톤 버전은 지름 40mm 케이스에 두께 2.23mm의 BVL 134 피니시모 칼리버를 탑재해 6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옥토 오리지널 크로노그래프

워치로서의 정밀함과 건축학적 창의성을 모두 갖춘 옥토 컬렉션. 케이스는 정교하게 디자인한 1백10개의 단면이 굴곡과 평면을 이루어 빈틈없고 매끄러운 표면을 표현해낸다. 이들에 담겨 있던 팔각 형태에 원형 배럴을 장착한 케이스가 매력적. 올해는 케이스 지름 41mm 사이에서 솔로렘포와 크로노그래프, 두 버전을 선보였는데 그중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오토매틱 와인딩에 실리온 이스케이프먼트와 날짜 기능을 갖춘 기계식 고전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BVL 328 벨로치시모 칼리버로 구동한다. 샌드 블라스트 마감의 블랙 DLC 코팅 처리한 스틸과 18K 로즈 골드 팔각형 케이스, 18K 로즈 골드 크라운과 핸드 이블리케 인텍스스 조화롭다.



루체아 스텔레톤

라틴어로 '빛'이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된 루체아 컬렉션. 기계식 시계의 심세하고 복잡한 매력에 빠진 여성을 위한 워치로, 로고를 뒤 지면에 통합한 루체아 스텔레톤 워치를 선보인다. 오토매틱 와인딩에 스텔레톤 처리한 기계식 매뉴팩처 무브먼트, BVL 191 SK를 장착했고, 베젤에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사파이어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를 택했다.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오픈워크 'BVLGARI' 로고 다이얼, 그리고 화려한 블루 악어 가죽 스트랩도 관련 포인트다. 문의 02-2056-0172 **에디터 장라윤**

CHANEL

올해 샤넬 부스를 장식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우스의 미학 코드를 응축한 시계이자 파인 워치메이커로서 도약을 상징하는 J12. 이 아이코닉 모델이 올해 론칭 20주년을 맞아 새 매뉴팩처 오토매틱 칼리버 12.1을 탑재한 뉴 J12 컬렉션으로 탄생했다. 더욱 진보한 무브먼트와 더불어 케이스, 다이얼 역시 디테일한 디자인 변화로 세련된 인상을 강조했다. 그 밖의 컬렉션에서도 소재, 디자인을 변주해 한계 없는 창작 세계를 펼쳐는 브랜드로서의 장기를 가감 없이 발휘했다. 우아한 베이지골드를 입은 코드 코코, 트윈드로 다이얼과 스트랩을 장식한 보이·프렌드, 메타에다르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마드모아젤, 시크한 블랙 에디션 무슈 드 샤넬 등, 모든 컬렉션에 걸쳐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진지하고 열정 넘치는 워치메이커의 면모를 확인시켰다.



J12

샤넬의 아이코닉 디렉터 지크 옐리가 고안한 J12는 국제 요트 대회 아메리카스컵의 12m급 J 클래스 레이스에 참가한 요트의 실루엣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모델명 역시 여기에서 따왔다. 타임리스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의 올 하이테크 세라믹 워치는 2000년 블랙 컬러로 처음 선보이며 2003년 화이트 버전으로 출시, 이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컴플리케이션과 디자인을 선보이며 크게 사랑받았다. 올해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뉴 J12 컬렉션은 새로운 셸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한 것이 특징. 투명한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칼리버 12.1은 스위스 시계 제작업체인 케니시(KENISSE) 매뉴팩처에서 개발한 것으로, 오실레이팅 웨이트를 디자인한 샤넬의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와 긴밀한 협업을 거쳤다. 한편 미세하지만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완벽에 가까워진 디자인 역시 눈에 띈다. 베젤을 키우고 다이얼의 숫자와 인덱스 폰트를 조정해 가독성을 높였고, '스위스 메이드' 문구 위치를 플랜지로 내려 정돈된 느낌이 든다. 또 카보숑 컷 세라믹으로 장식한 크라운을 3분의 1 크기로 줄여 크라운 가드와 부드럽게 이어 지도록 했다. 케이스는 이전보다 약간 두껍게 조정했지만, 시계 측면 라인을 안으로 더욱 둥글린 덕분에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다. 컬렉션을 구성하는 모든 모델의 케이스는 지름 38mm 사이즈로 화이트, 블랙 세라믹 기본 모델을 비롯해 다이아몬드 인덱스 버전, 올 블랙(뉴아르), 올 화이트(판텐) 에디션,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유니크 피스와 라미드 에디션 등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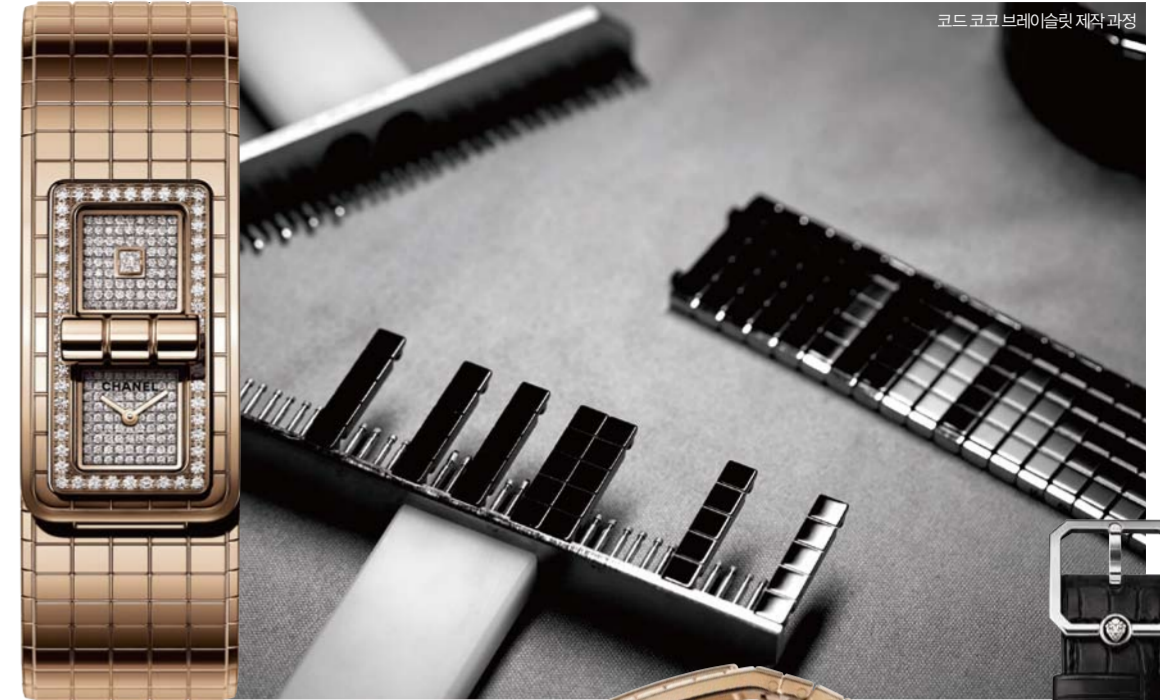
1, 2 숫자 인덱스 다이얼을 다룬 화이트 세라믹 케이스 버전 J12(45700). 시파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칼리버 12.1의 정교한 자태를 확인할 수 있다. 3, 4 블랙 세라믹 케이스와 블랙 레커 다이얼 버전 J12(45697). 카보숑 컷 세라믹을 적용한 크라운과 매끈한 곡선형 측면이 돋보인다. 5, 6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장식한 두 가지 모델(45705와 45702). 7 시계 전체에 19.2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라미드 에디션 J12. 8 시크한 올 블랙 컬러의 J12 뉴아르 에디션.



보이·프렌드 트윈드 스트랩



보이·프렌드 트윈드 아트



코드 코코 브레이슬릿 제작 과정

코드 코코

1955년 2월 탄생한 2.55 컬렉션의 정금장차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주얼리 워치. 경쾌하게 딸깍 소리를 낼 듯한 클로저가 다이얼 중앙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이를 통해 칼링 브레이슬릿을 착용하거나 풀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샤넬 고유의 합금 소재인 베이지 골드 모델을 처음으로 출시하는데,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컬러가 매력적이다. 여기에 다이얼, 베젤을 따라 2백4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1개의 프린세스 컷 다이아몬드를 더해 우아함 그 자체. 그 밖에 스틸과 블랙 세라믹 버전과 다이아몬드, 루비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피스도 선보인다. 퀴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코드 코코 베이지골드

프리미에르

남버 5 향수의 무궁과 파리 방돔 광장의 필라 향수에 착안한 샤넬 최초의 워치 컬렉션. 올해의 신제품인 프리미에르 벨벳, 프리미에르 벨벳 다이아몬드는 벨벳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텍스처를 구현한 블랙 라커 스트랩이 특징이다. 블랙 레커 다이얼 또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이얼로 집적인 화려함을 표현했다. 캡슐 컬렉션으로 단 55점만 출시하는 프리미에르 블랙 뉴아르 에디션은 레커 다이얼, ADLC 처리한 스틸 케이스와 채인 브레이슬릿, 레더를 엮어 만든 세 줄의 스트랩까지, 모두 인텍스 블랙 컬러를 입혀 모던함을 강조한 시계. 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크라운에 포인트를 줬다. 한편 마드모아젤 샤넬의 파리 아파트 장식품에서 영감을 얻은 유니크 피스 프리미에르 미드나잇 인 방돔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장식의 옐로 골드 개구리가 반지 모양 시크릿 위치를 안에 물고 있는 형태의 테이블 클락으로 아쉽게도 국내에서 만나볼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스토리와 디자인으로 이목을 끈 인상적인 제품이다.

파인 워치메이킹의 정수까지 엿볼 수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샤넬 워치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에서 마드모아젤 프리베 스투아르 모델을 선보였다. 샤넬 여사의 아파트를 장식한 코르넬 방풍의 시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유니크 피스 베이지 골드 케이스와 오톨스 다이얼로 이뤄진 판넬트 시계에 꽃, 나무, 새의 모습을 담았다.

무슈 드 샤넬

2016년 론칭한 무슈 드 샤넬은 오직 남성용 워치 시계로 인 스탠트 잠미 아우, 레트로그래드 미닛 기능을 갖춘 최초의 인하우스 칼리버 1을 장착했다.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케이스와 다이얼로 버전을 넓히는 가운데 올해는 매트한 블랙 세라믹 & 스틸 케이스와 블랙 다이얼, 블랙 알레기어 스트랩을 장착한 뉴아르 에디션을 선보였다. 한편에도 강렬하고 남성미 넘치는 디자인으로 케이스 지름은 42mm.



무슈 드 샤넬 뉴아르 에디션

마드모아젤 프리베

가브리엘 샤넬이 늘 옆에 두고 함께했던 물건과 상상을 담아 완성하는 창의적인 컬렉션. 에나멜 기공부터 인그레이빙, 보석 세공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장인의 손길을 거쳐기에 공방의 노하우와 탁월한 기술력은 물론



프리미에르 벨벳 다이아몬드(좌), 프리미에르 벨벳(우)



마드모아젤 프리베 스투아르

보이·프렌드

기존의 워치메이커가 주로 선보이는 여성 시계의 클래식하고 페미닌한 스타일 코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담은 감각적인 컬렉션.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샤넬의 상징적인 트윈드 소재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보이·프렌드 트윈드 아트다. 직선적인 베이지 골드 소재 필라형 케이스에 그랑퓌 에나멜 링으로 구현한 추상적인 트윈드 패턴 다이얼을 담고, 각 컬러에 어울리는 새틴 스트랩을 더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지름 37x28.6mm 크기로 20점씩 한정 출시한다. 한편 다이얼이 아닌 스트랩에도 트윈드를 적용했는데, 보이·프렌드 트윈드 스트랩 워치는 스틸 케이스와 블랙 기요세 다이얼, 베이지 골드 케이스와 오벌링 기요세 다이얼,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독특한 트윈드 패브릭을 덧댄 가죽 스트랩으로 멋을 냈다. 작년 바젤월드에서 처음 공개하며 기술적 역량을 인정받은 보이·프렌드 스키텔레트 워치는 올해 블랙 세라믹 케이스와 블랙 코팅 무브먼트를 장착한 뉴아르 에디션으로 전개한다.



보이·프렌드 트윈드 스트랩

플리워 프린트 드레스
가려 미용 밸런스,
공드 후본 이어링 55만원
발렌티노 카라비니,

플리워 프린트 드레스
1백46만원 워렌트 막스마라,
주얼 장식 이어링 27만원
스위르브스키,



Summer Scent

신록의 청량한 향기가 온몸을 감싸는 계절,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복고풍 서머 드레스와 함께한 초여름 오후의
포트레이트. *photographed by jung ji-eun*



레이스 장식 플리츠 드레스
6백9만원, 골드 & 실버 스팅글
장식 펌프스 1백39만원 모두
팬디, 크리스털 아이링 46만원
이블리에 스와로브스키.



화이트 드레스 2백45만원
블랙 스티드 벨트 7만원 미싱
스틸드 펌프스 1백39만원
모두 알렉산더 맥퀸

화이트 턱시도 재킷 2백39만원,
레이스 시스루 셔츠 1백68만원,
레이스 플리츠스커트 1백82만원,
앵글 스트랩 레더 펌프스 87만원,
골드 플레이트 링크 아이림
가격 미정 모두 **바버리**.



화이트 러플 장식 드레스
가격 미정 **구찌**.

화이트 플라워 패턴 드레스,
골드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핑크 스트랩,
핑크 가격 미정 지마루.



프린트 코트 모플린 소재
드레스, 엠보싱 카프 스킨
소재 부츠, 엠보싱 리본 드레스,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헤어 제시
메이크업 공혜원
모던 이서연
아사시톤 김현민
스타일리스트 채원석

빌런티노, 빌런티노 키르베니 02-2015-2653
지마루 02-3443-9469
스와로브스키, 아틀리에 스와로브스키 1522-9065
알렉산더 맥퀸 02-6905-3793
켄디 02-2056-9023
버버리 030-700-8800
구찌 1577-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샤넬 030-200-2700
워렌트 맥스마라 02-3471-1246

color Holic

색색의 페인트를 끼얹은 듯 형형색색으로 물들었다.
원색부터 네온까지 펼쳐진 눈부신 스펙트럼.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파 가죽 소재 앵클 스트랩 샌들 1백만원 **자비베트 로시**, 문의 02-6905-3690, 옐로 컬러 시피아노 가죽 소재 오데트 백, 14X21X6cm, 2백만원대 **프루다**, 문의 02-3442-1830
이세테이트 소재 텀플에 컬러 렌즈를 조합한 선글라스 54만원 **다들 by 시리아이웨어**, 문의 070-4870-0234, 악어가죽을 프린트한 원형 스가죽 클러처, 19X19X8cm, 1백48만9천원 **앨버라**, 문의 02-3438-6140
햇 핑크 컬러 스테이트 소재 펄프스 65만원대 **스튜디오 와이즈먼**, 문의 02-3479-1528, 특별한 잠금장치를 장착한 토리옹 잭스 소재의 레안 가방, 20X8X15cm, 가격 미정 **모아나**, 문의 02-2254-4150, 객원 에디터 **남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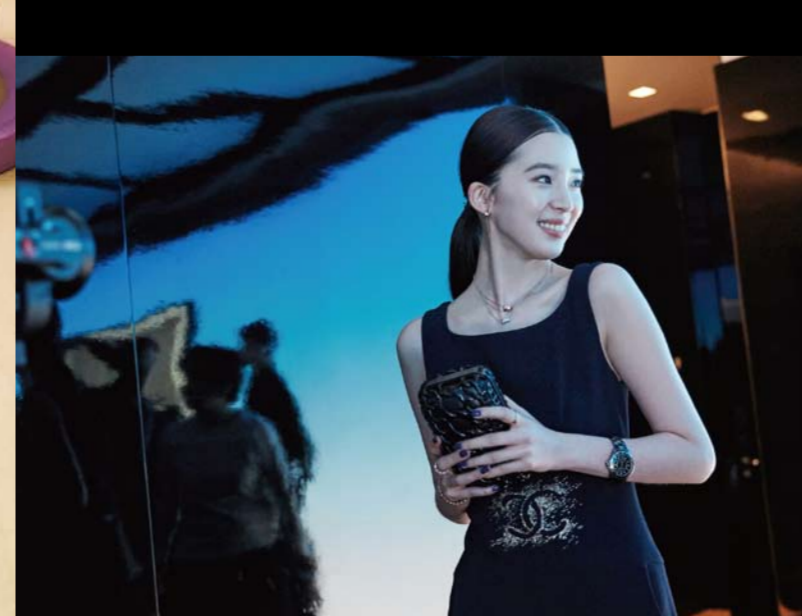


decisive Seconds

당신의 모든 시간을 결정적 순간으로 만들어줄 뉴 J12 워치.



지난 5월 8일 청담동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에 위치한 전시 공간에서 뉴 J12 워치 론칭 이벤트가 열렸다. 2000년 처음 세상에 등장한 J12는 당시 아티스틱 디렉터였던 자크 엘러가 경주용 자동차의 날렵한 라인과 아메리카스컵에 참가한 요트에서 영감을 받아 고안한 하이테크 세라믹 워치로, 클래식한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샤넬 워치의 대표 아이콘. 올해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선보이는 새로운 모델은 기존의 상징적인 아이덴티티를 고수하되 베젤과 크라운의 크기를 조절하고 다이얼 내부 문구 위치와 인덱스의 폰트를 바꾸는 등 10가지에 이르는 세밀한 디테일 변화로 보다 세련된 느낌을 구현했다.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모델을 한국 고객에게 소개하고자 마련한 행사에선 샤넬의 글로벌 엠베서더로 활동하는 9명의 여성이 뉴 J12와 함께한 모습을 담은 캠페인을 소개해 시선을 끌었다. 흑백 영상에 등장한 키아라 나이틀리, 릴리 로즈 텀, 바네사 파라디 등의 셀러브리티는 저마다 인생을 바꿔놓은 결정적 순간과 그 소중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샤넬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매 순간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뉴 J12는 바로 그러한 의지를 지닌 여성을 위해 탄생한 시계라는 사실도, 문의 080-200-2700 에디터 **이혜미**



1, 2, 3, 6 청담동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 5층과 6층에 마련된 뉴 J12 워치 론칭 행사장, 4, 5 샤넬의 엠베서더 릴리 로즈 텀(위)과 바네사 파라디(아래)가 뉴 J12 워치를 착용한 모습을 담은 캠페인 스틸컷, 7, 8 뉴 J12 워치 론칭 이벤트에 참석한 배우 김고은, 모델 이아린.



fine White

소재 자체에 컬러를 담았다.
가볍고 단단하고 무엇보다도 스크래치에 강하다.
깔끔하고 시원한 화이트 세라믹 워치 7.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샤넬 화이트 주얼리 J12** 20년 전 블랙 세라믹 버전으로 첫선을 보이며 시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J12. 탄생 20주년을 맞이해 성공과 신화를 이룬 아이콘 워치는 그대로 지킨 채 베젤을 7구고 숫자와 인덱스 폰트를 조정하는 등 현대 여성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버전을 출시했다. 세라믹과 스틸을 매치한 지름 38mm 케이스에 COSC 인증을 받은 칼리버 12.1을 장착했고, 7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가격 7백만원대. 문의 080-200-2700 **블가리 세르펜티 스파가** 특유의 탄성으로 착용감이 안정적이다. 18K 로즈 골드와 세라믹을 매치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총 3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백만원대. 문의 02-2056-0172 **다들 파인 주얼리 다들** 및 28mm 다들 하우스 코드와 오프 쿼터스를 손목에 표현해낸 아이콘 워치. 파라이드 컷 세라믹은 건축을 사용한 무수 다들의 캐주얼 패턴에서 영감을 받았다.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한 화이트 세라믹 버전 1천7백60만원대. 문의 02-513-0300 **제니스 데미 클라시 화이트 세라믹 데미 클라시** 은 브랜드의 미래적인 시계 공학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표현한 라인. 지름 41mm 세라믹 케이스의 각진 실루엣과 완벽한 원형 베젤, 화이트 라바 스트랩과 타타늄 버클을 매치했다. 알티 스텔레트 화이트 칼리버를 담았으며, 6시 방향에 날짜창이 위치한다. 9백만원대. 문의 02-3279-9040 **오메가 시타스타 플래시 오션 600M** 오메가는 2005년 처음으로 플래시 오션 라인을 출시하며 브랜드의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했다. 시타스타 플래시 오션 600M은 오메가의 다이얼 시계 전통에 버는 오마주. 화이트 세라믹 단방향 베젤과 세라믹 다이얼, 아라비아숫자, 3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특징으로, 지름 39.5mm 스틸 케이스를 매치했다. 이빨에서 알 수 있듯 600m 방수가 가능하며 헬륨 가스 배출 밸브를 장착했다. 케이스 백을 통해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0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 9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리도 트루 인라인 켈 스페인** 디자이너 인마 베르 무데즈와 협업해 탄생시킨 시계. 다이얼 가장자리의 12개 다이아몬드로 인덱스를 대신했고, 얼음처럼 차가운 외관에 따뜻한 느낌을 더하는 골드 디테일로 포인트를 줬다. 1천1백만원대로 케이스 백을 스페셜 인그레디언트로 장식했다. 2백30만원대. 문의 02-2143-1825 **브라 이틀링 슈퍼 오션 60년** 넘게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슈퍼 오션 컬렉션 중 가장 작은 버전.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훌륭한 스포츠 시계를 원하는 여성을 위해 디자인했다. 지름 38mm 스틸 케이스에 튼튼한 단방향 세라믹 회전 베젤을 매치했다. 다이얼은 라이트 블루와 화이트 중, 스트랩은 라바 스트랩과 스틸 브레이슬릿 중 선택할 수 있다. 4백만원대. 문의 02-3448-1230 **에디트 장미**



the excellence of Precision

1948년 오메가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첫 번째 크로노미터 인증 손목시계를 선보였고, 이는 4년 뒤 선보인 컨스텔레이션 컬렉션의 중요한 오리지널 모델이 되었다. 70여 년이 지나 새롭게 선보이는 여성용 101 컨스텔레이션 모델은 조금 더 현대적이고 우아하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1948년 브랜드 창립 1백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선보인 선택과리는 오메가가 처음으로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손목시계로, 정확성을 추구하는 시계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오메가는 공인된 자격을 갖춘 정식 컬렉션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로부터 4년 후 이러한 철학을 담은 시계 컬렉션, 컨스텔레이션을 론칭했다. 어떤 브랜드도 크로노미터만으로 구성된 제품군을 선보인 적이 없던 시기에 컨스텔레이션 컬렉션은 당시 더욱 시선을 모았으며, 이는 탁월한 성능을 통해 정확성을 추구하려는 오메가의 오랜 노력을 증명하는 중대한 신호가 되었다. 컨스텔레이션은 반짝이는 별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시킨 이름. 가장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하는 동시에,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이름다운 시계를 만들겠다는 바람을 담은 이름이기도 하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여성용 101 모델은 1952년 버전의 세련된 디자인, 깔끔한 라운드 다이얼, 그리고 작은 골드 스타 장식 등 초기 특징 중 일부를 그대로 적용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모서리에는 베젤 가공을 하고, 베젤은 좀 더 슬림하게 디자인했으며, 크라운에는 여성스러운 빈달 모양을 새겼다. 그리고 스텔레트 나뭇잎 모양의 슬림한 핸즈를 장착했다. 케이스 지름 25mm, 28mm, 29mm, 총 세 가지 사이즈를 선보이는데, 25mm와 28mm 모델에는 오메가 칼리버 4061을, 29mm 모델에는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700/8701을 장착했다. 문의 02-511-5797 **에디트 장미**

sponsored by OMEGA



새롭게 선보이는 여성용 101 컨스텔레이션 모델. 아이콘적인 컨스텔레이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드러나는 섬세한 변화를 줬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컨스텔레이션 맨해튼 워치 25mm 화이트 마더 오브 펄 다이얼 2천2백만원대, 컨스텔레이션 맨해튼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29mm 화이트 마더 오브 펄 다이얼 3천1백만원대, 컨스텔레이션 맨해튼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28mm 선 브라이트 블루 다이얼 3천만원대 모두 오메가.

the art of Timekeeping

보다 예술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향유하는 워치메이커 리차드 밀이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타임피스를 소개한다.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포켓 워치 RM 020이다.



최초의 휴대용 시계이자 손목시계의 선행 모델로 수 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회중시계. 시간 측정이라는 개념을 개인의 영역으로 옮겨 왔다는 것에서 역사적으로 큰 기술 성과를 의미한다. 리차드 밀은 이 특별한 시계에 흥미를 느껴 보다 현대적인 해석을 더한 매뉴얼 와인딩 투르비용 포켓 워치 RM 020을 개발했다. 고전 모델에서 느낄 수 없는 건축적인 미학과 자유로운 공간 배치가 돋보이는 시계로, 가로 62mm, 세로 52mm, 두께 15.6mm 크기의 5등급 티타늄 케이스와 체인 연결부로 구성했다. 특히 12시 방향의 크라운과 이어진 장사방향 체인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작품 '무한 기둥'에서 영감을 얻은 것. RM 020을 구성하는 크라운과 크라운 커버, 걸쇠, 시계 스탠드 모두 시계 부품 전문

제조사로 명성 높은 슈발 프레르(Cheval Frères)가 제작한 것으로, 1백89개의 부품을 5백80번 이상의 공정을 거쳐 완성한 만큼 매우 정교하고 내구성이 높다. 시계에 동력을 제공하는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RM 020은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제작한 카본 나노 섬유 소재 베이스 플레이트를 사용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뛰어난 안정성을 갖췄고, 투르비용과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장착했다. 또 자동차의 기어 박스와 메커니즘이 유사한 기능 선택 장치를 갖춰, 크라운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 와인딩(W), 중립(N), 시간 조정(H) 모드로 변경 가능하며 4시 방향에 위치한 핸즈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초정밀 메커니즘을 적용한 덕분에 짧은 시간에 손쉽게 풀 수 있는 체인을 제거하면 회중시계를 탁상시계로 활용 가능한 것 또한 매력적인 부분. 시계를 거치하는 스탠드도 함께 제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문의 02-512-1311 에디터 이예민



1, 3, 4 매뉴얼 와인딩 투르비용 포켓 워치 RM 020. 2 RM 020의 체인 연결부와 걸쇠 부분. 5 견고한 무브먼트의 일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 백. 6 체인을 분리한 뒤 스탠드에 거치하면 탁상시계로도 사용 가능하다.



modern Taste

작년에 출시한 스타 레저시 폴 캘린더의 아라비아숫자 인덱스 모델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올해도 주목받을 스타 레저시 컬렉션 중 몽블랑 엠베서더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서준이 선택한 Best 3를 살펴보자.

몽블랑 하면 떠오르는 스마트한 매력을 가장 잘 간직한 워치 컬렉션이자 미네르바의 역사와 고전적인 파인 워치메이킹에 뿌리를 둔 '스타 레저시'는 몽블랑의 스타 컬렉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컬렉션이다.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 디자인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층 더 클래식한 마감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신한 이 컬렉션은 매뉴팩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파인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담은 자체 제작 컴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2008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진정한 몽블랑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니콜라스 위섹 모노푸서 크로노그래프부터 문웨이즈 및 폴 캘린더 기능을 적용한 시계까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지난 1월에 개최한 스위스 고급 시계 박람회(SHH)에서 선보인 스타 레저시 폴 캘린더의 로만 인덱스 모델은 국내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제품이다.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몽블랑의 스타 레저시 컬렉션과 함께한 박서준은 모노톤 슈트와 함께 근사한 비즈니스 맨으로 변신했다. 문의 1670-4810 에디터 장라윤

● sponsored by MONTBLANC

▶ 몽블랑 스타 레저시 폴 캘린더 안티 모인 크라운과 몽블랑 엠베서, 아이코닉한 스타 기요세 패턴 등 미네르바 시계에서 따온 디자인 코드를 적용했다. 오토매틱 칼리버 MB 29.12로 구동되며 지름 42mm 스틸 케이스 속 다이얼의 가장자리를 둘러싼 31개 숫자를 따라 도는 빨간 초승달 모양 핸즈로 날짜를 읽는다. 요일과 월은 다이얼 위쪽 12시 방향에 위치한다. 가격은 9백68만원.



◀ 몽블랑 스타 레저시 니콜라스 위섹 크로노그래프 아연의 주름차에서 영감을 받은 스테이시 기요세 패턴으로 장식된 다이얼을 지름 44.8mm 케이스로 감쌌다. 몽블랑의 아이코닉 매뉴팩처 오토매틱 와인딩 모노푸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칼리버 MB R200으로 72시간 구동한다. 기어 트레인과 크로노그래프 휠은 바빈턴 칼리버에 의해 맞물렸다. 풀리지를 반박하기 때문에 크로노그래프 작동 시 타이밍 디스크가 잠보하지 않도록 해 시간이 지나도 미모나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수평으로 위치한 2개의 회전 디스크는 모노푸서 크로노그래프의 60초, 30분 7분타이머 세컨드 타임존은 다이얼의 스텔레톤 핸즈로 표시한다. 가격은 9백96만원.



◀ 몽블랑 스타 레저시 문웨이즈 6시 방향의 세련된 문웨이즈는 29일 12시간 44분 3초를 주기로 초승달, 보름달, 반달, 상현달, 하현달로 모습을 바꾸는 달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리버 MB 29.14를 탑재해 최상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지름 42mm의 스틸 케이스는 블랙, 블루 또는 그레이 스페이퍼 메탈로 스텔레톤 스트랩, 골드 케이스에는 브라운 메탈로 스텔레톤 스트랩을 매치했다. 시진속 박서준이 착용한 시계는 스틸 케이스로 가격은 5백28만원.



● sponsored by RICHARD MILLE



art of Precision

예거 르쿨트르가 새롭게 선보인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미닛 리퍼터 퍼페추얼에는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과 기술력, 그리고 장인 정신을 반영했다. 행사를 위해 교토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전통이 살아 있는 도시

키 작은 기와지붕 사이사이로 간간이 모던하고 반듯한 빌딩이 보인다. 좁게 굽이진 돌바닥 골목과 잘 닦인 4차선 대로가 어우러진 교토는 아직도 과거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 이런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몇십 년 혹은 대를 이어 몇백 년째 도자기를 굽고 부챗살을 다듬는 장인은 교토의 상징이 되었다. 자연과 건축, 문화, 풍습에 큰 의미를 두고 기꺼이 느린 변화를 택한 교토의 매력은 1백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밀하고 정교한 기술력과 뛰어난 예술적 비전의 완벽한 하모니를 증명해온 예거 르쿨트르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시간을 표시하는 작은 부품들의 섬세한 조합, 정교한 인디케이터를 포함한 무브먼트의 정밀성, 그리고 장인들에 의해 엄격히 계승되고 있는 1백80가지 위치메이킹 기술과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등 끊임없는 노력과 소명, 그리고 도전을 통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17일, 일본의 옛 수도 교토와 그랑 위치 매종 예거 르쿨트르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시계 애호가들을 또 한번 놀라게 한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미닛 리퍼터 퍼페추얼을 소개했다.

최고의 정밀성을 담은 아름다운 시계

세계에서 가장 멋진 포시즌스 호텔 중 하나로 꼽히는 포시즌스 호텔 교토, 일본식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만난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미닛 리퍼터 퍼페추얼은 탁월한 정밀성으로 완성한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다. 예거 르쿨트르 그랑 매종은 현재 2백 개가 넘는 차임 시계 칼리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스위스 고급 시계 박람회(SIHH)에서 선보인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자이로투르비옹 웨스트민스터 퍼페추얼의 성공에 이어 5월에 새롭게 선보인 시계다. 오직 30피스만 제작하는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미닛 리퍼터 퍼페추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컬렉션의 미학적 코드에서 영감을 받았다.



© sponsored by JAEGER-LECOULTRE



부에 숨겨진 칼리버 950의 와인딩 로터도 관찰할 수 있도록 퍼페추얼 캘린더와 미닛 리퍼터 사이에 배치했다. 챔터링과 새틴 마감, 코트 드 주네브 장식과 같은 무브먼트의 섬세한 마감 요소들은 놓치면 아쉬운 관전 포인트.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미닛 리퍼터 퍼페추얼은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네오클래식 스타일의 그레인 처리 실버 다이얼과 반투명한 딥 블루 기요세 에나멜 다이얼,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그야말로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쌓아온 브랜드의 유산과 미니어처 장식 기법의 탁월한 예술을 결합해 소네리 타임피스를 제작해온 그랑 매종의 1백49년 전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시계라 할 수 있다.

예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시간

예술과 역사의 도시 교토의 밤을 비추는 밝은 조명 아래, 예거 르쿨트르는 1833년부터 계승되어온 마스터 위치메이커와 장인들의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고, 이에 경의를 표현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 주요 지역의 VIP 고객 및 프레스 등 행사에 초대받은 1백여 명의 게스트들이 신노도 사원(Shinnyodo Temple)에 모였는데, 정밀한 위치메이킹 기술 뿐 아니라 에나멜링 기법과 일본 특유의 지수 장식 및 상감 세공 기술과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진귀한 오브제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무형 문화재와 같은 의미인 일본 인간国宝 예술가 3인(지수 장인 후쿠다 기주(Kiju Fukuda), 목공 장인 스다 겐지(Kenji Suda), 래커 장인 야마기시 가즈오(Kazuo Yamagishi))가 모였고, 그중 지수 장인 후쿠다 기주 팀은 현장에서 직접 수를 놓아 시선을 끌었다. 그 옆에는 이번 행사를 위해 발레 드 주에서 특별히 방문한 2명의 예거 르쿨트르 위치메이커 및 에나멜 장인이 함께해 세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위치메이킹 기술과 예술 기법도 선보였다. 게스트들은 예거 르쿨트르 시계처럼 제작에 수시간 혹은 수개월 소요되는 진귀한 작품에 대해 이해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고, 일본 전통극 노와 갈라 디너를 즐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문의 02-756-0300 **에디터 장민준**



혁신적인 공 시스템으로 그랑 컴플리케이션 시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엔티크 소네리 포켓 위치의 이상적인 차임을 부활시켰다. 일반적으로 미닛 리퍼터 위치는 중첩된 코일에 공을 평평하게 놓는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이 시계는 베이스에 용접된 2개의 공이 무브먼트를 가로지르며 위쪽으로 급격히 휘기 전까지 한 바퀴 정도 회전하며 무브먼트 주변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고안했다. 그런 후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 공들이 무브먼트의 다른 면을 따라 반인 형태를 그리며 이동하다 각 공의 끝부분이 만나기 직전에 멈춘다. 이런 움직임은 진동을 만들어내는 요인인 공이 최대한의 공간을 차지해 또렷한 사운드를 만들어내게 한다. 높은 음을 내는 공은 소리굽쇠의 갈래처럼 뒤로 꺾어 방향을 전환하고, 낮은 음을 내는 공은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나선형으로 움직이며 균형 잡힌 소리를 선사한다. 최적화된 차임 음향과 음질을 구현하는 이러한 새로운 조합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는 소네리 시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중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시계는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을 통해 시계를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윤년을 포함해 일수가 다른 달에도 정확한 캘린더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주목해야 할 다른 특징으로는 아이릿 미닛 핸드 측에 가깝게 자리한 직관적인 사쿠리터 존. 해당 인디케이터는 10시와 1시 방향 사이에 자리한다. 정교한 마감 기법이 돋보이는 무브먼트의 움직임은 시계 뒷면에서 볼 수 있는데, 무브먼트 내



1, 2 지난 5월 17일 교토의 신노도 사원에서는 정밀함의 예술을 주제로 예거 르쿨트르의 예술과 기술에 대한 찬사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3, 5 딥 블루 기요세 에나멜 다이얼과 그레인 처리한 실버 다이얼, 두 버전으로 선보이는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미닛 리퍼터 퍼페추얼. 4, 6 견고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는 지름 43mm에 두께 13.72mm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출시한다. 7, 8 2개의 공이 칼리버 950을 기동하며 움직이도록 고안해 시운트 전담 성능을 향상시켰다. 케이스 백에는 무브먼트의 예술적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9, 10, 11, 12 이날 행사에는 일본의 인간国宝 예술가들의 작품과 위치메이킹 예술이 어우러졌다.



lifting & Firming

환절기에 몸 건강만큼 신경써
관리해야 하는 것이 피부.
철감상어 알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바르는 즉시 눈에 띄는
효과를 주는 라프레리의 스킨
캐비아 라인을 추천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봄비림과 여름 햇살 사이에서 옷차림만큼이나 갈팡질팡하는 피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피부는 상당히 예민하다. 수분과 탄력이 떨어져 푸석거리거나 붉어지고 가렵고 잠티까지 올라오기도 해. 이럴 때 일수록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줄 수 있는 스킨케어 가 필수. 건강한 피부 재건에 효과적인 아미노산과 미네랄, 그리고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캐비아 성분을 담은 라프레리의 세 가지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한다.

먼저 세안 직후 또는 토닝 후 사용하는 프리 세럼 트리트먼트 에센스의 스킨 캐비아 에센스-인-로션. 최초로 캐비아 워터를 사용한 제품으로,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며 무엇보다 뛰어난 트리트먼트 제품들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켜준다. 한번 사용 시 2~3방울이면 충분하다.

두 번째 제품은 노화 방지를 위한 세럼이자 라프레리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불리는 스킨 캐비아 리퀴드 리프트. 역시 진귀한 캐비아 추출물이 스트레스로 생긴 주름을 채워주고 보습력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피부에 탄력을 주는 제품이다. 처음 사용할 때는 액티브에이트 베타를 눌러 제품을 활성화한 후 병을 흔들어 혼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후 손바닥에 펴핑해 한두 방울 따라서 발라주면 끝. 완전하게 피부에 흡수시킨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더욱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스킨 캐비아 에센스-인-피운데이션은 스킨 케어의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면 되는데, 무엇보다 지극 없이 피부를 맑고 투명하며 생기 있게 표현해주고 결점을 가려줘 출사와 함께 큰 인기를 얻은 제품이다. SPF 25 및 PA+++ 기능이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UVA를 차단한다. 무려 11가지 컬러로 출시되어 피부 톤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빛과 공기를 적절히 차단해 포클러를 완전한 상태로 보존해주고 기법적 누르며 적당량이 분사되는 라프레리만의 최첨단 기술력도 담았다.

문의 02-511-6626 **에디터 장미윤**

(위부터) 즉각적으로 피부에 리프팅 효과를 제공하는 스킨 캐비아 리퀴드 리프트,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스킨 캐비아 에센스-인-피운데이션, 피부 톤을 밝게 개선하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스킨 캐비아 에센스-인-로션 모두 **리프트리프**.

● sponsored by la prairie

gentlemen's Essentials

취향이 세련된 남성을 위해 탄생한 '블루 드 샤넬' 셰이빙 듀오 신제품.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스타일을 완성하는 요소로 완벽한 그루밍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샵에서 우아하고 세련된 남성의 데일리 그루밍 패턴에서 빠놓을 수 없는 셰이빙 신제품 두 가지를 출시했다. 바로 감각적인 네이비 블루 패키지를 입은 블루 드 샤넬 셰이빙 크림과 블루 드 샤넬 2-IN-1 모이스처라이저. 우선 부드럽고 가벼운 텍스처의 블루 드 샤넬 셰이빙 크림은 섬세한 스타일링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투명한 제형 덕분에 수염과 면도날의 가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원하는 스타일을 쉽게 연출할 수 있다. 목 주변이나 양 볼처럼 관리하기 까다로운 수염 라인도 쉽게 케팅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을 듯. 애프터 셰이브 제품인 블루 드 샤넬 2-IN-1 모이스처라이저는 이로마 우디 계열 향이 은은하게 지속되는 가벼운 젤 타입으로 피부는 물론 수염 위에도 진여물을 남기지 않고, 면도 후 자극받은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진정시킨다. 그렇다면 면 두 가지 제품을 단계별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따뜻한 물로 얼굴을 충분히 적신 뒤 셰이빙이 필요한 부위에 블루 드 샤넬 셰이빙 크림을 사용해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하듯 비른다. 수염이 자라는 방향부터 면도를 시작하고 이후 차가운 물로 세안해 남은 크림을 말끔히 제거한 뒤 물기를 닦는다. 마른 얼굴에 블루 드 샤넬 2-IN-1 모이스처라이저를 발라 수분감을 채우고 수염도 함께 정돈하면 끝. 마지막으로 이로마 우디 계열 향수인 블루 드 샤넬 빠르팡의 섬세한 향까지 더하면 더욱 완벽하게 마무리된다. 문의 080-332-2700 **에디터 이예미**

(왼쪽부터) 블루 드 샤넬 2-IN-1 모이스처라이저 50ml 7만2천원, 블루 드 샤넬 셰이빙 크림 100ml 7만6천원, 두 가지 신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그윽한 향이 배기되는 블루 드 샤넬 빠르팡 100ml 18만5천원 **샤넬**.

● sponsored by CHANEL
블루 드 샤넬 에디션 2021 그루밍 라인

editor's Pick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신제품까지, (스타일 조선일보)가 다채롭게 추천하는 6월의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로에 노라드 오드 투왈렛** 기존에 선보인 노라드 오드 퍼퓸을 재해석한 제품으로 보다 가볍고 페이난한 향이 특징이다. 스크린리치와 우아한 프르지마 향이 아우라져 사랑스러운 느낌. 빈티지한 핑크 컬러 가죽 메듭으로 장식한 커브 형태의 투명 보틀 역시 감각적이다. 75ml 13만1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이혜미*

샹카이 리얼 보르저 자연에름 리피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큰 사랑을 받은 보르저가 반갑게도 온고임 제품으로 돌아왔다. 켈 파우더 포뮬러로 미치 내 피부인 듯 부드럽고 얇게 밀착되어 포도상 불려 효과처럼 주름을 가려준다. 11g 11만4천원. 문의 02-517-0902. *by 에디터 장리윤*

랑콤 압슬루트 마드모아젤 라인 #157 마드모아젤 드림 촉촉하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마치 오일을 듬뿍 함유한 듯하다. 무려 15가지 향으로 출시하는데, 157번 컬러인 다홍빛 마드모아젤 드림은 발색이 강하지 않아 낮에 발라도 무리가 없다. 3.2g 3만7천원. 문의 080-001-9500. *by 에디터 장리윤*

다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스팟 밤 큰 인기를 얻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에 이어 국소 부위 고민을 해결해줄 스팟 제품을 출시했다. 약간의 청성 이 있는 중간 텍스처로 밀립 현상 없이 피부에 잘 스며들어 메이크업 전 기초 단계에 사용해도 좋을 듯.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미네랄과 아미노산과 각종 추출물을 비롯해 색소침착을 예방하는 트라카우아이드, 니아신아미드를 고농도로 함유했다. 30ml 2만5천원. 문의 080-085-8245. *by 에디터 이혜미*

카텔 칼렌듈라 허벌 엑스트랙트 토너 피부 회복과 상처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알려진 국화과 식물 칼렌듈라 꽃잎이 그대로 들어 있는 토너.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순해 피부를 진정시킨다. 남성을 위한 에프티 세이브 제품으로도 적용할 듯. 250ml 5만5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혜미*

다티지 오드 민네 오드 퍼퓸 날이 더워질수록 싱그러움과 가벼운 향을 찾게 된다. 파파르트의 한 종류인 캐스케이드 민트를 사용한 이 향수는 중후한 우디 노트인 파슬리아와 블랜딩해 싱쾌함과 동시에 깊은 감이 느껴진다.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향이 인상적이다. 75ml 21만원. 문의 02-3479-6049. *by 에디터 장리윤*

베이지 데이지 리페어 트리트먼트 마스크 인체에 자극을 주는 실리콘, 알코올, 파라벤 등의 화학 성분을 배제하고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 원료로 만든 헤어 트리트먼트 마스크. 공기유역과 오가닉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패루스 그린 카미피 오일과 이분간 오일 등을 함유해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모발을 가꿔준다. 200g 4만2천원. 문의 070-6787-6333. *by 에디터 이혜미*

겔랑 아베이 로얄 더블 R 리뉴 레페어 세럼 청정한 생체 환경을 갖춘 유네스코 생태 보전 지역 위생(Ouessant)섬에 사육하는 블랙비가 생산하는 꿀과 로열젤리를 담은 세럼. 피부에 광채와 탄력을 주는 두 가지 세럼을 한 병에 담았다. 2~3년 정도 광채와 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성을 따라 귀 쪽으로 부드럽게 미사처럼 덧바르면 된다. 부스팅 효과를 지닌 워터리 오일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면 더욱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 30ml 21만2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이혜미*

나스 블러쉬 오로가름 글로벌 베스트셀러이자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블러쉬 오로가름의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이다. 피치 핑크와 골드 시어 펠이 조화를 이루는데, 피부 톤이 밝은 에디터에게는 부드럽고 발그레한 컬러로 표현되어 어울리지 않았다. 8g 5만4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장리윤*

에스티 로더 더블웨어 스테이-인-플레이스 플로우리스 웨어 컨실러 SPF 10 #1C light 눈 밑 기미나 볼루지, 부분적으로 울긋불긋해진 얼굴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 가벼운 크림 타입으로 톨과 핏, 습기에 강해 하루 종일 커버 가능하다. 특히 건조하지 않으며 바티민 D를 함유하고 SPF 10의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갖추어 피부를 제대로 보호한다. 7ml 4만원. 문의 02-3440-2772. *by 에디터 장리윤*

클레드프 보베 랑콤 수딩 세럼 수프림 계절에 상관없이 피부가 땅기는 극간성인 에디터가 사랑에 빠진 제품. 적당한 유분감 덕분에 편안하고 매끄러운 텍스처에 한편, 살짝 끈적이는 쏠쏠하고 리치한 텍스처에 또 한편 마음을 뺏겼다. 순수 레티놀 성분은 피부 탄력과 수분감을 부여하고, 무엇보다 미세한 주름을 잡아준다. 20ml 3만5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장리윤*

에이비에르 코스메틱 블루 샤카 이졸렌 듀 수딩 하이드레이션 크림 얇은 생수 대비 10배 이상의 마네를 함유한 강력한 보습 성분수와 유가 농도 천연 보습 성분인 맨 타버린을 함유해 72시간 촉촉함을 느낄 수 있는 크림. 청명한 하늘색 워터 핑크에 보습 감촉이 들어 있어 부드럽게 물렁하면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는데, 텍스처가 가볍고 산뜻해 여름 내내 부담 없이 사용될 수 있다. 100ml 5만5천원. 문의 02-546-5071. *by 에디터 이혜미*

리프레이 스킨 케어아 피부더 피운데이션 #10 포슬린 블러쉬 케어아 추출물을 함유한 크리미한 텍스처의 피부더 피운데이션. 미세한 피그먼트 덕분에 은은한 광채 피부를 표현할 수 있다. 미니얼한 섀비 미러 & 블루 파우더 역시 만족스럽다. 부드러운 에어 파프와 함께 얇은 거울과 확대 거울, 두 가지를 내장해 사용하기 편리할 듯. 9g 27만3천원. 문의 02-511-6626. *by 에디터 이혜미*



summer Breeze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그리고 파도 소리. 존 바바토스 향수에서는 여유가 느껴진다. 자극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향을 선호하는 남성의 스타일링에 화룡점정이 되어줄 세 가지 향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순수로 짙은 나무로 감싼 시그니처 보틀에 여름을 담았다. 감귤류와 허브 톤이 조화를 이루어 시트러스의 상큼함을 극대화하는 존 바바토스 아티산 125ml 11만3천원. 미국산 상어송아지 털이 영롱해 유닉 존바와 함께 탄생시킨 향수로, 화려한 블랙이 기록한 도시 발견을 가늠하는 저우롭고 트랜디한 남성들 상상하며 조향했다. 향긋한 민트, 라벤더, 로즈메리 등의 향과 감귤이 있는 우디가 밸런스 있는 프레스시 푸저르 향의 존 바바토스 X 닉존스 (Jv X Nj) 125ml 11만9천원. 아티산 컬렉션의 가장 좋은 제품으로 라벤에서 영감을 받았다. 순수한 시트러스 향에 레몬과 오렌지, 그리고 플로럴 향을 더하고 우디 향으로 모노하게 마무리한 존 바바토스 아티산 퓨어 125ml 11만3천원. 모두 존 바바토스. 문의 02-3443-1806. *by 에디터 장리윤*



SHOWROOM

JEWEL & WATCH

볼가리

볼가리

옴블랑

옴블랑

오메가

오메가

샤넬

샤넬

반클리프 아펠

반클리프 아펠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브스키

에르메스

에르메스

까르띠에

까르띠에

에르메스

에르메스

까르띠에

까르띠에

샤넬 뉴 J12 레이싱 요트 실루엣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하이테크 세라믹 시계로 올해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무브먼트 12.1을 탑재했으며 배젤을 카위 그래픽 적 매력을 더했다. 문의 080-200-2700

까르띠에 팬더 드 까르띠에 워치 컬렉션 전 세계적으로 30년 넘게 사랑받아온 팬더 드 까르띠에 워치의 미니 모델을 선보인다. 배젤을 포함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우아하며 케이스는 21X25mm 크기로, 손목이 가는 여성도 부담 없이 착용 가능하다. 골드, 스틸, 주얼리 워치 등 6가지 라인업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66-7277

에르메스 겔름 데르메스 디자이너 이니 아르카렐이 에르메스의 아카이브 오브제를 토대로 디자인한 대담하고 독창적인 시계. 미구 장식에서 영감을 얻은 아치 형태 케이스와 6시 방향에 위치한 크라운이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상단부로부터 늘어나고 작아지는 인테크스도 원근감을 느낄 수 있으며 말안장에 달린 발 받침대 등자를 뒤집은 형태의 숫자 8로 특별함을 더했다. 문의 02-542-6622

옴블랑 보헬 데이 앤 나잇 뉴 컬렉션 여성을 위한 보헬 컬렉션의 새로운 모델, 보헬 데이 앤 나잇을 출시한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레드 골드 인테크스와 핑크가 클래식한 무늬를 더해 중앙의 낮과 밤 인디케이터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다. 블루 컬러 가죽과 스테인리스 스틸 스트랩으로 출시하며 케이스 지름 28mm, 30mm, 27가지 사이즈 총 8종 가능하다. 문의 1670-4810

리처드 밀 RM07-01 카본 TPT 브레이슬릿 13개월의 연구 끝에 선보이는 브레이슬릿으로 카본 TPT®와 티타늄이라는 혁신적인 소재로 제작했다. 2백 개의 정교한 부품으로 리처드 밀의 섬세한 미학을 표현했으며, 무게가 29g에 불과해 가볍고 편안하다. 문의 02-512-1311

포타디 골드 피인 주얼리 컬렉션 포타디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피인 주얼리 컬렉션. 장미, 바나나, 원숭이, 삼각형 로고 등 하우스 아카이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7가지 아이코닉한 모티프를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주얼리로 완성했다. 목걸이를 비롯해 귀고리, 팔찌, 펜던트 등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출시한다. 문의 02-3218-5331

스와로브스키 노 리그렛 컬렉션 여름을 상징하는 아이스크림, 과일 등 모티프를 생동감 넘치는 오렌지, 핑크 등 비비드한 컬러와 조합했다. 제품을 믹스 매치해 비경스룩에 활용하기 좋다. 문의 02-1522-9065

에기 르클르르 케어 프로그램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구입한 시계에 관한 정보, 관리 방법 등을 확인하고 품질 보증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등록한 고객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고객 맞춤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온라인에서는 한국어, 영어 등 12개의 언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문의 02-6905-3998

볼가리 와이드 팜 하이 주얼리 컬렉션 개성 넘치는 1980년대 팜의 세계를 표현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공개했다. 앤디 워홀의 작품, 종교, 반려모 등에서 영감을 얻은 주얼리부터 빅 헤어와 울퉁한 프린트 등 1980년대 트렌드에서 모티브를 따온 주얼리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과감한 사이즈, 대담한 컬러 조합 등으로 기존 주얼리의 룩을 깨뜨리는 실험적인 방식이 돋보인다. 문의 02-2056-0172

골든듀 린콘트로 듀엣 초창적인 팔각형 모티브로 프로그 세팅한 다이아몬드를 품은 귀고리와 펜던트로 구성했다. 여름 데일리의 룩부터 격식 있는 록까지 두루 매치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문의 1588-6576

부쉐론 잭 드 부쉐론 휴대폰에 꽂는 잭 플러그 모양과 무한대를 상징하는 인피니티 모티프를 활용한 새로운 컬렉션. 천이나 머리카락이 끼지 않도록 인피니티 한 체인 덕분에 제품을 서로 연결해 길이를 조정하며 목걸이, 귀고리, 헤어밴드 등으로 응용해 연출할 수 있다. 메종의 다른 컬렉션과도 믹스 매치 가능하다. 문의 02-6905-3322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아폴로 11 리미티드 에디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1969년 인류 최초 달에 발을 내딛을 당시 함께했던 시계인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을 기념한 1만 천 14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스피드마스터 BA145.022의 디자인을 재해석해 골드 합금 소재로 제작했다. 케이스 뒤편은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문구와 함께 고유의 에디션 넘버를 새겼다. 문의 02-511-5797

반클리프 아펠 베일리 컬렉션 화려한 골드 비즈 장식이 돋보이는 링, 펜던트, 이어링, 롱 네크리스 등으로 이루어진 베일리 컬렉션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옐로 골드 소재 롱 네크리스는 중앙의 모티프를 터키즈, 코랄, 오닉스 비즈 버전 중 하나로 교체할 수 있어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하다. 문의 00798-852-16123

IWC 빅 파일럿 워치 페페 추얼 컬린더 스핏파이어 형태와 기능의 완벽한 조화에 주목해 영국 항공기 스핏파이어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 올리브 그린 색상의 다이얼, 브라운 케이스, 브라운 카프 스किन 스트랩이 파일럿 조종복을 연상시키며 빈티지한 멋을 뽐낸다. 12시 방향의 더블 문페이즈 디스플레이의 양면 스핏파이어 모양의 표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문의 02-3440-5876

FASHION



자방시
보티카 베네타
막스마라



로로피아나 오븐 워크 & 서머 워크
로로피아나
자방시 아리아나 그란데 모델 선정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카
에트연 좋겠는 바림과 함께 자방시와 함께해 기뻐하는 소식을 밝혔다. 그와 함께한 2019 F/W 캠페인은 오는 7월에 공개된다. 문의 02-546-2790

보티카 베네타 2019 F/W 컬렉션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분다삼 청담에서 팝업 스토어를 통해 하우스에 합류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비드 리의 첫 번째 공식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었다. 데칼다 주 네크라인이 특징인 여성복은 물론 시즌리스 룩으로 구성된 남성복과 다양한 핸드백 라인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 문의 02-3438-7682

막스마라 레저 컬렉션 스위스부터 팬츠, 티셔츠까지 여행을 위한 다양한 비주얼을 제공한다. 컬렉션은 시즌에 걸맞은 실루엣, 라틴 소재와 자연에 어울리는 뉴트럴 컬러로 준비했다. 문의 02-3467-8326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카 로프 컬렉션 여름 정원을 테마로 한 2019 S/S 로프 컬렉션을 추천한다. 캔버스 백 내부는 PU 코팅 처리해 악천후로 활용할 수 있고, 생활 필수 기능까지 갖춰 실용적이다. 27가지 사이즈에 블루, 오렌지, 브라운, 3가지 컬러로 출시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문의 02-2230-1225

키텨 핏 스니커즈 발등을 덮는 부분에 새긴 키텨 자수와 레드 테리 스트링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방수 기능을 갖춰 더욱 실용적인 면 니트 소재의 스니커즈, 핏 스니커즈를 출시한다. 문의 02-542-9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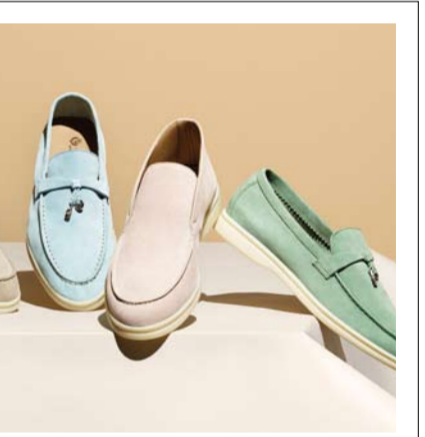
BEAUTY

리프레리 슈퍼밤 클렌저 아침저녁으로 사용하면 좋은 밤 타입 클렌저. 함께 제공하는 스파츨러로 적당량을 덜어내 비르면서 시원 에멀션 제형으로 변한다. 덕분에 피부 불순물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다. 향산화 및 보습 성분 포몰라가 수분이나 피부 본래 보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해준다. 문의 02-511-6626

프라다 캔디 나이트 오드 퍼fum 오리엔탈 구르망 계열 여성 향수로 비터 오렌지, 네룰리의 상큼함과 통카 빈의 부드러움, 달콤 쌉쌀한 초콜릿과 파슬리의 향까지 느낄 수 있다. 보습 향단의 미드 워터 블루 컬러 그라데이션과 핑크 컬러 바닥의 조화가 매력적이다. 문의 080-363-5454

샤넬 블루 드 샤넬 페르페 초창기 올라비에 풀주가 만든 이모리티-우디 계열의 남성 향수로 '블루 드 샤넬 오드 투일렛', '블루 드 샤넬 오드 페르페'에 이어 '블루 드 샤넬 라인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 선들우드 향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 매력적이며 사티와의 조합이 깊고 강렬하다. 문의 080-332-2700

메르세데스-벤츠 파퐁스 맨 블루 베르가모트의 시원하고 상큼한 향으로 시작해 앰버우드, 머스크로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남성 향수. 내면이 따뜻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을 상상하게 한다. 중앙의 삼



카본
로로피아나

Burberry TB monogram collection

브랜드의 새로운 하우스 코드인 TB 모노그램을 패턴 프린트로 활용한 새로운 TB 모노그램 컬렉션이 공개되었다. 창립자 토머스 버버리의 이니셜을 담은 TB 모노그램은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 총괄 책임자 리카르도 티사가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아트 디렉터 피터 사빌과 협업해 탄생시킨 새로운 하우스 코드다. 아카이브에서 찾은 20세기 로고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것. 지난 5월 22일에 공개한 새로운 TB 모노그램 컬렉션은 오버사이즈 티셔츠와 코트 폴로 셔츠, 트랙 팬츠, 나일론 소재 보어 재킷 등 의류 외에도 가방 컬렉션과 스카프와 바키니, 샌들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되었다. 컬렉션 론칭을 기념해 셸라브 리트 모델 지지 히드라가 참여한 캠페인에서는 생필과 스타일을 넘나드는 스타일링 팁을 얻을 수 있을 듯. 국내에서는 버버리 온라인 스토어(Burberry.com)와 서울 플라그라운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6월 6~16일) 및 센텀점(6월 13~23일) 팝업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80-700-8800





Perlée Collection
Rose gold, yellow gold
and diamond bracelets,
yellow gold ring.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